



# 나 무 와 열 매 도 서 관

#서울 종로구 #인건비 지원

## 도서관의 어린 나무들

우리 도서관 이름은 ‘나무와열매도서관’입니다. 처음 도서관이름을 공모할 때 ‘나무’가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에 심겨진 어린 나무들이 잘 자라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습니다.

##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서관

우리 도서관은 지역에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서관을 꿈꾸며, 아이들이 와서 눈치 보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항상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줍니다. 이곳에서 엄마들의 동아리도 많이 꾸려가고 합니다. 고전독서모임, 사진, 캘리그래피, 바느질 동아리들이 있고 언제든지 와서 편히 차를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을 무악동의 친정처럼 여기고 멀리 이사를 가도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나무와열매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2017년에는 긴급지원119 덕분에 도서관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설립주체가 임대료나 공과금, 인건비를 지원하기에, 나무와열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되면 도서관을 열고 있어야 하기에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어 일정한 수입 없이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2017년에는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음으로 관장은 도서관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자원 활동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업도 더욱 활발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구성된 ‘책읽어주는할머니’ 동아리 12명이 동화구연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초등학교 책 읽어주기 사업인 ‘동화동무씨동무’에도 참여하였고, 그림자원정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로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소개받은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교육의 독서를 신설하여, 도서관으로 아이들이 와서 매주 책읽어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잘 참여하고 있고 도서관을 통하여 미술교육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무와열매도서관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도서관에서 목공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아이들이 한가위 잔치에 아빠들과 함께 와서 즐겁게 만들기 하는 모습이 좋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던 아이들과 함께 요리교실을 열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던 프로그램도 기억에 남습니다. 늘 친정 같은 도서관으로 여기고 찾아와 주는 엄마들이 있어 나무와열매도서관은 활기찬 나날을 이어갑니다.





한편,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특성상 대여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과 교육이 중심이기에 책을 많이 비치하는 문제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마을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해결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궁극의 해결책은 아니기에 ‘작은 도서관이 조금씩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도서관을 설립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그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 나무와열매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지역의 연극단체와 마을사업에 함께 연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책 읽고 가사 쓰고 노래 만들고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뮤지컬 같은 조그만 공연을 해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 여러 동아리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이용자들을 발굴하여 관계를 맺고 도서관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이용자, 주민께서 도서관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특히 미디어교육단체와 연합하여 진행하는 목공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주변 중학교 과학 동아리와 진행하는 과학실험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 능력 있는 엄마들을 발굴하여 도서관에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은도서관은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질의 보상을 기대한다면 힘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에너지와 더불어 책을 통해 얻는 무한한 힘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충분히 주기에 시간을 투자하기에 아깝지 않습니다.